

## 샘물중고등학교 2016 봄소식지

샘물이야기 샘 | 네 번째 이야기 Vol.4

섬기는 예수 제자의 목적 있는 일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어느덧 샘물의 2기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샘물이야기 '샘'을 통해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주목했으면 합니다. 다음세대 생명과 교회가 바로 이곳 샘물학교를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 샘



2016 마음발교육(지리산 두레마을에서)

01  
학교장인사

04  
샘물의 발자국

06  
봄 컨퍼런스

11  
마음발교육

14  
WCA 겨울캠프

16  
비전트립

20  
교직원 이야기

26  
샘물의 통합교육

30  
학부모이야기

32  
졸업생 이야기

발행일 : 2016년 4월 21일  
발행처: 지원본부 대외협력팀  
입학 및 후원문의 : 031.714.7091  
이메일 : support@smca.or.kr  
홈페이지 : www.smca.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ilovesmca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2016 봄소식지(Vol.4) 발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원고 하나하나마다 꼼꼼하게 감수해주신 국어과 선생님,  
봄 냄새가 묻어나는 멋진 사진을 제공해 주신 장상현 선생님과  
이종성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샘물인들과 귀한 동역자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학교를 세  
워가시는 학부모님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삶의 이야기로 이번 소  
식지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소식지 출판을 후원해 주신 세종씨엔피(주)의 지원으로 더욱 힘  
있게 발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샘물중등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세워  
저가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 동역해주시  
는 은혜샘물교회 및 이사, 후원교회 목회자, 성도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대외협력팀 드림

학교장 인사

## 본이 된 예수, 봄 길을 내는 사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봄 길' 전문)



**얼**마 전,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모든 선생님에게 선물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 봄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을 생각하다가, 이미 길이 된 우리의 본(本)-예수님을 묵상하며 요한복음 13-17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모범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연합은 다른 모든 주제에 앞서는 주제입니다. 연합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 심장이 멈추었을 것입니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리로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했고, 그 진리 공동체의 이상을 실천했습니다. 그 증명이 오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하여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예수제자로 양성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세상은 더 험해져만 갑니다. 어떻게 예수 제자로 양성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로 하나가 되고, 그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공공거리며 살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하고, 공공거리야 할 진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때'(요 13:1) 드러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자기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인 영광의 광휘는 높은 통치의 보좌에 앉으시고, 찬란한 옷을 입고 군림하는 왕의 즉위식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 영광의 정점입니다. 세상 영광의 정점은 높은 곳에 있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은 아주 낮은 곳,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인이 종보다 높고, 선생은 제자보다 높은 사람이지만,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셨습니다(요13:14-15).

이 모범 안에 녹아있는 광채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기독교 정신과 그 섬김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이 강물을 만난 사람들, 진정한 기독교를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의 보살핌과 섬김을 통해 예수를 만났고, 평범한 사람 안에 깃든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22) -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예수의 영광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살고, 진리로 연합하는 하나 됨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때로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좌절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떠오를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선언하고, 용기를 내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샘물인들의 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본(本)을 따라, 봄 길을 내는 사람들, 그 대열이 강물처럼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글 \_ 샘물중고등학교장 이찬형





# 샘물의 발자국

2016.01~03

지난 겨울부터 3월 새학기까지 샘물에서의 즐거운 배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2회 졸업생들의 빈자리는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운 신입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자라가는 샘물에서의 지난 발자국을 돌아봅니다.





# 봄컨퍼런스

2016.03.01 ~ 04(3박 4일)

샘물중고등학교 8학년 이상 학년은 봄학기 개학 첫 주 봄 컨퍼런스를 통해 성품과 언어습관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서로가 함께 배려하고,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 함께 자라는 감사와 기대

글 \_ 임한결 학생(11학년 2반)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학년 친구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양육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런 수많은 일 하심 중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컨퍼런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1학년은 12학년 선배들, 그리고 10학년 후배들과 함께 1년여 만에 다시 강화도 성산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등학교의 막내학년으로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던 것이 었그제 일처럼 눈에 선한데 이제 더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공손하게 대해야 할 선배들이 있었고 밑으로는 앞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할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찬양팀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리는 점입니다) 3박 4일간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기쁘게 찬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며칠간의 몸 상태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끼리 '컨퍼런스 노래'라고 부르는 아주 익숙한 노랫가락을 들으며 깨어났고 다시 한 번 추억을 쌓으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반별로 모여 아침 복상을 하는데, 비몽사몽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달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후배들과 함께 조별로 야외에서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10학년 아이들 몇 명과도 새롭게 친해질 수 있었고 11학년 친구들과는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몸을 쓰는 여러 종류의 팀 간 대결 및 게임도 있었고 미각을 사용하는(?) 매우 참신한 미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바깥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오후 시간에는 풀뿌리 학생회에서 준비한 샘물 공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우리의 안건은 '학교에서 이동수업을 할 때, 가방과 옷을 비롯한 짐을 각자 반에 놓고 다녀야 할까 아니면 들고 다녀야 할까'였습니다. 아이들은 주제의 애매함과 사안의 중요도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의에 잘 따라주었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잘 참여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했고 우리의 첫 공동회의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특별 강사로 오신 마상욱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네 영혼을 뛰게 하는 네 안의 스파크를 찾아라'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진로를 정할 시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그 전날과 같이 아침 예배 때 싱어로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날 불렀던 수많은 찬양 중 하나인 '예배자'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사에 쓰인 어려운 표현들이 해석되면서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기도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힌 채 떨리는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올 한 해에 기대하는 점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잘 나누어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첫째 날부터 반별로 준비해온 스킷 드라마를 마무리 짓고 발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힘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럴

싸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마침내 10, 11학년이 반별 결과물을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반 아이들의 결과물 또한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재미있었습니다. 연극에 임하는 태도 또한 활발했고 동시에 진지했습니다. 몇 시간 뒤 드디어 컨퍼런스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고 우리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렇게 기쁘게 찬양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원을 만들고 '예배자'의 가사를 고백할 때는 울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감사'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제 기도제목은 친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달 비전트립 때부터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심에 감사했습니다. 찬양팀과 풀뿌리로 세워주심에 감사했고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를 즐겁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번 컨퍼런스가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할 때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매일 아침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뜰 때 느꼈던 기쁨과 매번 찬양 전 짧은 기도 시간에 느꼈던 주님의 임재에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래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훨씬 더 놀라운 임재와 기쁜 경험들로 저희를 채우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대'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 밝았습니다!

글 \_ 조대섭 선생님(성경, 10학년 1반 담임)

이 가진 내규를 돌아보기도 했고, 반복했던 수련원 프로그램 대신 교사들이 직접 준비한 미니올림픽을 통해 잊고 있던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경 인물을 등장시켜 각종 장르로 구성한 반별 스킷드라마는 준비 과정과 발표를 통해 각 사람이 가진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청지기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동회의를 통해서도 샘물인들이 어떻게 샘물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 배우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의 삶이 무엇인지 연습해 보았습니다.

시간 찬양팀으로 섬기는 후배들을 격려하겠다는 찬양팀 기도의 시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11학년들은 이제 샘물의 기둥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해 빼격 대던 모습은 어떻게 그렇게도 한순간에 펼쳐버렸는지, 마치 새로운 아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동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들, 준비된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들, 매 순간 하나 되어 그 시간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감동과 고마움 그 자체였습니다. 11학년 아이들이 세워나갈 샘물의 모습이 참 기대됩니다.

10학년도 관계 속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샘물이 아닌 타 중학교를 거친 아이들이 낯선 학교생활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배들과 숙소에서, 편성된 조 안에서 어우러지는 모습도 참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컨퍼런스로 인해 샘물고등학교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밝았습니다. 짐 지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컨퍼런스는, 도리어 미래에 지게 될 짐을 벗어버리는 고마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샘물고등학교가 이렇게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밝았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돌아봄, 회복, 시발점, 기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와 게으름, 내면의 문제들과 애써 싸워왔지만 이겨내기엔 무력했던 자기를 격려해주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스파크(말씀 강사 목사님께서 쓰신 표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잠재력과 가능성, 열정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창조의 불꽃과 같은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를 찾아 나서겠다는 고백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우렁차고 밝은 새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둘째, 서로의 관계가 밝았습니다. 12학년은 든든한 만이의 모습으로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주로 함께했던 예배 시간에는 가장 열정적인 예배자로 후배들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찬양팀을 거쳐 갔던 선배들은 긴

셋째, 아이들의 신앙이 밝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장 감사했던 순간으로 손꼽은 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이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즉시 삶으로 가져가겠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며 모든 것의 정답이신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스파크를 찾고자 부르짖었습니다. 담임교사를 위한 기도시간에는 부르심의 위대함 앞에 연약하게 서서 눈물을 펄펄 쏟던 저를 아이들이 손잡아 주고 안아주어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 단 한 번도 찬양하지 않았다는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쿵쾅거리는 드럼 비트가 없어도 찬양소리와 박수 소리가 강당 안을 찌렁찌렁 울리도록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나와 우리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셔서 밝아짐의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우리 아이들과 저희 교사들의 앞날이 참 기대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샘물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새 학년이 밝았고, 새 학기가 밝았습니다.

샘물인들은 “밝았습니다”라는 인사로 하루를 엽니다. 교실에서도 “밝았습니다”를 외치며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 밝음의 인사를 나눌 때, 빛이신 주님이 밝혀주시는 삶에 대한 기대를 담습니다. 스스로는 밝을 수 없으며, 어둠을 쫓아 살기를 좋아하는 무서운 습성을 주님께서 잠재우시길 기대하며 말합니다. 그 밝아짐의 은혜가 컨퍼런스를 통해 저희에게 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외부 수련원에서 긴 시간 진행되는 컨퍼런스가 부담이겠지만, 교사에게도 컨퍼런스는 무거운 짐일 때가 있습니다. 샘물인들이 함께 내디디고 경작하게 될 실력의 땅을 영성과 인성으로 조명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 단추가 잘 꿰여 들어갈 수 있을지, 교사들은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전부터, 진행하고 마칠 때까지 기도와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관계 위에 질서 세우기”라는 실제적 주제를 내걸고, 학급과 학년, 나아가 교사를 포함한 고등학교 전체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그 관계 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복상과 찬양으로 시작한 하루는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되었고, 이번 컨퍼런스를 떠받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2학년들은 그 토대 위에 실력의 토양을 열심히 일구었습니다. 10, 11학년은 O, X 퀴즈로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샘물






## 선후배, 편지로 잇대다



8, 9학년 봄 컨퍼런스는 '공동체 세우기, 샘물의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날 '선후배 하나되기' 시간에는 8, 9학년 학생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선후배가 모여 편지를 읽으며 샘물의 선후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9학년 선배님들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편지를 쓰게 되었네요! 지난 1년 동안 선배님들께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또 국토순례 때 많이 도와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많은 모범이 되어 주시는 남자 선배님들! 축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선배님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선배님들, 중학교 생활 1년 남았는데 남은 1년 동안 힘내시고 마무리 잘하세요. 서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나면 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샘물에서 지낼 남은 시간 예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희 인사 잘 받아주세요! 예쁘고 잘생긴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8학년 일동드림 

### 8학년 후배님들께

 밝았습니다. 

안녕 8학년 후배들! 작년부터 우리가 벌써 2년 동안 함께 지냈구나.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 쌓여 있던 것들을 풀기 위해 이 편지를 써. 우선 서로 즐겁게 인사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너희도 먼저 인사해주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안 받아줄 거로 생각했던 건 아니지? 우리는 언제나 받아줄 수 있으니까 맘 놓고 인사해!!!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참 착한 친구들인 건 알지만 지켜야 할 선은 지키자. 존댓말도 좀 꼭 하고^^ 아무리 우리가 편해도 지키는 건 지켜야지. 서로 친밀해지는 것도 좋지만 예절과 존중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 우리도 너희를 존중하고 배려할게. 혹시 너희가 우리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담고 있지만 말고 솔직하게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전해줘.

너희가 7학년 때보다 노력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조금씩 더 서로를 존중하면서 샘물배움공동체 안에서 좋은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가자.

From. 9학년 학급의 목소리 일동

마음발교육 2016.02.29 ~ 03.04 (4박 5일)

예비중등& 7학년

## 다시 쓴 마음발이야기

마음발 교육이란?

마음발교육은 샘물의 교육이 좋은 열매로 맺히기 위하여 새롭게 입학한 예비중등(초6)과 7학년 학생들의 마음발을 기경하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복상, 말씀(잡인) 읽기, 기도 산행, 노동, 독서, 공동체 놀이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배웁니다.



마음발교육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발을 가꾸기 위한 교육이다. 나는 작년에 이미 예비중등으로 마음발교육을 다녀왔다.

그래서 '뭘 작년이랑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마음발교육에 임했다. 하지만 이번은 작년과 달랐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새로운 활동들을 하며 이전과 많이 달라진 기분이 들었다.

첫째 날은 언어 표현 방식에 대한 공동체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배웠고, 내가 하는 말이 어찌면 친구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둘째 날은 교장 선생님의 특강을 들으며 샘물에서의 일상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친구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또 오후에는 '삼일절 새기기' 활동으로 대한민국 3·1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태극기를 그려보며 조상님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밤에는 몸과 머리를 이용한 활동으로 즐겁게 웃으며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르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에는 산행을 하며 아침을 시작했다. 노동으로 발일하고 기독교적 배움과 자기주도 학습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넷째 날에는 묵은 누룩을 태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있던 묵은 누룩을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내게는 묵은 누룩을 태우고 기도했던 마지막 시간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다.

열심히 찬양 불러주신 하꿈샘, 단비샘, 연준샘, 열심히 PPT 넘겨주신 리미트샘, 즐거운 공동체 시간 진행해주신 토브샘, '예수님처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신 연준샘, 기독교적 가르침을 쉽게

설명해 주신 위드샘, '3·1절 새기기'라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단비샘, 예비중등 잘 이끌어주신 동화샘, 맛있는 식사 만들어 주신 집사님들, 좋은 설교해 주신 교장샘, 목사님, 재미있게 같이 논 친구들과, 화장실 변기 막히게 해서 재미있는 상황 만들어 주신 그분. 이분들이 있기에 더욱 빛나는 마음발교육이었다. 2016, 샘물 화이팅!

글 \_ 박병주 학생(7학년 사랑반)





예비중등& 7학년

#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02.26  
준비하다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준비했다. 강화도에서, 학교에서 보냈던 지난 2년의 컨퍼런스와는 다르게 지리산을 향해야 하는 마음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발을 만지시고, 우리를 교사로 다져가실지 기대하며 준비모임을 마쳤다.



02.29  
떠나다

날씨가 흐려서 조금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첫 번째 여행이기에 설렌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섰다. 휘날리는 눈발을 뚫고 도착한 지리산 두레마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눈발이 더 거세진다. 일정이 늦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모임 장소로 모이는 것을 기도했다.

65명의 아이와 8명의 선생님의 4박5일 마음발 만들기가 시작된다. 동그란 원 안에서 서로가 만나지 않게 자신을 소개한다. 순간순간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그 눈길이 참 따스했다고 기억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했을까? 73명을 이어 준 그 동그란 원 안에서 사랑에 물들어 간 것 같다.

마음발 두 번째 날이다. 그리고 삼일절이다. 마음발 교육을 기획하면 대해 이야기하고, 아픔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높이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기를 기도한다. 이 나라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를 기도한다.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몸을 부대끼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최고다. 퀴즈를 풀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피구에서 이기기 위해 몸을 모은다. 순간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계신다. 경기가 끝나고 승패는 잊은 지 오래였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있던 벽들이 무너진 이 순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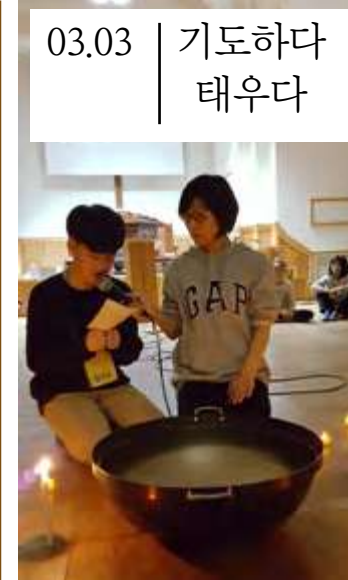
03.01  
모으다



03.02  
섬기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이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죄인 된 나를 기다리셨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자라는 양파를 둘러싼 잡초를 뽑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양파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잡초들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



03.03 | 기도하다  
태우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릴 수 없다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다. 그리고 기도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며 교사인 나 또한 나를 돌아본다.

묵은 누룩을 태우는 시간이다. 내 안에 있는 죄들,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적고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하나 둘 용기를 낸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로 고백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태웁니다. 끊어 내지 못했던 죄악들을 끊어냅니다.' 모두의 고백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다. 눈물이 흐른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묵은 감격의 눈물이다.



03.04  
돌아오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마음 들뜨게 한다. 5일간 집을 떠나있었던 아이들은 집, 가족이 얼마나 그리울까. 그리운 마음을 붙들고 짐을 꾸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라신다. 비를 맞으며 짐을 버스에 싣고, 아이들을 태우고 그리운 집으로 향한다. 5일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새로운 학년의 뿌리를 단단하게 엮어준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게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떼냈던 시간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할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 아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2016년이 시작했다.

글\_ 김지훈 선생님  
(국어, 7학년 사랑반 담임)







배우고 성장하고 추억을 쌓는  
**WCA겨울캠프**  
 글 \_ 김중서 학생 (9학년 복음반)

2015년 겨울, 부푼 마음으로 22명의 친구와 선후배,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꽤 오래전부터 WCA 영어캠프를 마음에 품고 있던 나였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후원으로 올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캠프를 떠나기 전까지 매주 준비모임을 가졌다. 첫 모임 때 이 캠프를 통해 가장 얻고 싶은 것 3가지를 정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캠프 슬로건은 '배우고 성장하고 추억을 쌓는 WCA겨울캠프'였다. 여러 달 동안 많은 것들을 점검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다. '이 캠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머리 아플 정도로 했었던 많은 고민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쉽게 올 기회가 아니기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정말 낯설었다. 그곳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도 도전이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권이기에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 안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이념과 세계관들을 밖으로 꺼내어 던져놓았다. 큰 도전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샘물을 통해 나는 꿈을 가지게 되었지만 지금 샘물 안에 있는 나는 행복하면서도 어느 대한민국의 학생들처럼 고민이 참 많다. 처음 캠프에 지원했을 때는 별생각은 없



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고 나니 한 선생님이 해 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면 나에게 여러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다. 실제로도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 세계관으로 바라본 나의 꿈은 조금 더 선명해졌다. 이 점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기독교학교 Westminster Christian Academy에 다녔다. 이 학교는 우리 샘물의 자매 학교이다. 기독교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와 세운 기독교의 나라 미국이 점점 세속적인 문화의 중심지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천 명이 넘는 기독교가 정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보니 참 기뻐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미국 학교에 다니기는 쉽지만은 않았다.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른 게 많은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공부한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많은 선생

님은 학생을 가르치시는 일에 항상 기쁨으로 임하셨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기다려 주셨다. 또 그곳에서 너무도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다.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항상 영어를 사용하고 수업까지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서 즐겁게 보내게 되었다. 특별히 마지막 주에는 Spirit Week라고 하는 학교 축제 기간이어서 기억에 크게 남을 색다른 경험을 하고 왔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인 차이가 컸다. 집을 떠나 눈칫밥을 먹는 듯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환경을 즐기게 되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막상 떠나게 되었을 때는 많이 서운하고 슬펐다. 지금도 WCA캠프를 생각하면 한 달 동안 경험한 많은 추억이 필름처럼 쭉 스쳐 지나간다. 한 달은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너무 값진 것들을 많이 얻어 가지고 온 것 같다. 너무 좋은 호스트 가족과 선생님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온 것 같다.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 봐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자 교훈이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내가 캠프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샘물중고등학교에서는 매해 겨울방학 미국 자매학교 WCA(St.Louis소재)에서 영어 및 일반 수업에 참여합니다(신청학생만 해당). 학부모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미국과 기독교가정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격년 여름방학에는 본교에서 영어캠프가 진행됩니다.





##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1차  
2016년 1월 17일~20일(연천)

2차  
2016년 1월 21일~24일(창녕)

글 \_ 김예지, 문수빈 학생  
(11학년 1반)

한 달간을 이 비전트립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잘하고 싶은 욕심에 선물과 다과도 엄청나게 준비했고,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오직 우리들의 힘으로만 이 비전트립을 준비하려고 했다. 처음엔 어



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뚜렷하게 윤곽이 잡혀 갔다. 방학 때에도 피곤하다는 불평도 없이 나와서 함께 해 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웠다. 한 팀으로 다 같이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사이가 멀었던 친구조차 무척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졌다. 그냥 나를 따라 열심히 춤을 추는 남자애들, 이것저것 물어보며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모아 준 친구들의 의외의 모습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질 뻔도 했었다. 짐을 바리바리 싸 들고 우리는 다시는 겪지 못할 따스한 경험을 기대하며 4시간 버스를 타고 경상남도로 내려왔다. 하지만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영하로 급격하게 떨어진 날씨 탓에 얼마나 추울지 가늠하기도 힘들어 걱정되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장마제일교회.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다. 추운 곳에서 잘 뻐한 여자아이들에게 사탕을 내어 주셔서 따뜻한 바닥에서 3박 4일을 잘 묵을 수 있었다. 처음 와서 한 일은 노동이었다. 할 일을 말해주시면 바로바로 자원해서 “내가 할게!” 손을 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도 게으름을 떨쳐 버리고, 이곳저곳 뛰어다녔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시던 화투도 얹어 놓으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르신들 덕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식사당번도 아이들이 직접 맡았다. 앞치마를 한 모습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물론 미숙하지만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요리 기구를 바쁘게 놀리며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었던 식사당번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어쩌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많이 성취하고 잘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던 것 같다. 첫날 기도회를 할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친구들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그동안 쉽사리 터져 나오지 않았던 기도의 말문이 열렸다. 나에겐 너무나 감사한 밤이었다. 그렇게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져 가며 하룻밤이 저물었다.

둘째 날, 내가 아침 식사 당번이었는데 생각보다 무척 분주했다. 30여 개의 식빵을 하나하나 굽고 짬과 햄, 치즈 등을 올렸다.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었지만 다들 웃고 농담도 하며 즐겁게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한 아침밥을 잘 먹여주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이후 오전, 오후에 경로당을 한 번씩 다녀왔다. 뽀뽀하게 앉아있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울동, 트로트에 열심히 호응해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할아버지들과 같이 한 웃놀이였는데 계속되는 역전에 우리와 할아버지들이 하나 같이 웃으며 소리쳤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할머니들 또한 다들 너무 좋으셔서 한분 한분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둘째 날 밤 초청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열심히 점검했기에 잘 진행될 거라 믿었던만, 시간은 계속 늦어지고 아이들의 입·퇴장 동선 등이 애매하게 꼬여 갔다.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줘 간신히 끝이 났다. 하지만 이 상태로 내일 초청 행사가 가능할지 걱정도 많이 되었다.

셋째 날이 밝아왔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방문했다. 손을 마주 잡고 ‘사랑의 주님이’ 울동도 같이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귀했다. 돌아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초청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아이들 덕분에 일은 잘 진행되어갔다. 풍선으로 예쁜 꽃도 만들고, 선물 포장도 하고, 사회자도 준비하고 총연습을 할 때는 어제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편안

하게 진행되었다. 자신의 맡은 것들을 언제 하면 되는지 다급하게 물어오는 친구들을 보며 계속 웃음이 피식피식 새어 나왔다. 악기합주를 할 때는 정말 이지 마음이 몽클해졌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다과 및 최종적인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두 분씩 들어오셨고 우리의 초청행사는 시작되었다. 내내 밖에서 팻말을 들고 어르신들을 맞아준 이쁘고 고마운 친구 성연이, 투덜대면서도 제일 열심히 해준 성준이, 머리띠가 참 잘 어울리는 영성이까지 추운데 덜덜 떨면서도 어르신을 맞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뻐다. 망설임 없이 다과를 준비하고 감을 열심히 잘라 마치 엄마 아빠처럼 일 처리를 능숙하게 해준 고마운 솔론이와 우리 팀의 최고 리더였던 승록이, 기타와 사회를 맡아 큰 목소리로 힘든 일을 감당해준 현우, 행사 내내 음악과 PPT를 거침없이 넘겨준 성현이와 뒤에서 분신처럼 열심히 잘해준 예은, 주일 내내 추운 밖에서 고생한 재운, 은서, 의진, 찬희, 해상, 한결이 등 멋진 벽화팀 그리고 시키면 정말 잘 해주는 일꾼 승현, 세현이 등 섬김팀 친구들까지 모두가 함께 했기에 이 3박 4일이 가능했던 것 같다.

또한, 행사에 오신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나온 사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따뜻



해져 갔다. 마지막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부를 때 눈을 깜박이며 눈물을 살짝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도 울컥했다. 우리가 헛일한 것은 아니었구나! 정말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 같았다.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을 보여드렸다.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나가시는 어르신들께 내가 오히려 더 감사했다. 선생님들의 역할도 정말 컸던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더는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일이 잘 풀렸던 것 같다. 저마다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닌 성숙하고 멋진 선배의 모습으로 변한 것 같다. 남을 챙기고 굿은일이라도 먼저 나서기를 자원하는, 어르신들께 살갑게 다가가기도 하고 공동체의 식사자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 같다. 2016 장마제일교회 비전트립, 정말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었던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다. 글 \_ 김예지 학생 (11학년 1반)



그리고 잘 몰랐던 친구들의 예쁘고 성실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 매일 밤 기도시간을 가지며 서로 중보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기대하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어르신이 예배당을 채워주시도록 그분들의 달린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초청행사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정말, 나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비전트립이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놀라운 힘을 기억하며 중보하고 싶다. 만났던 어르신들, 아이들, 교회분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너무도 고생하신 메일쌤, 하나쌤, 경배쌤, 그리고 우리 선곡교회 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곡교회에서의 비전트립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글 \_ 문수빈 학생 (11학년 1반)



**연**천으로 출발하기 2주 전, 나는 이유 모를 불안감과 어수선한 마음에 계속해서 잠을 설쳤다. 비전트립을 준비하는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남아 작업을 하고 갖가지 준비들을 하면서도 어두운 숲길을 헤매는 것 같아 무서웠다.

분명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연습량을 늘리고 나를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지만, 점점 악화되지만 하는 것 같아 힘들었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답답한 질문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떠나기 이틀 전 기도 모임에서 메일쌤은 복상 내용을 언급하셨다. '오늘 복상 말씀이야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어주셨다. '그는 흥

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 비전트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등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메우려고 그렇게 부질없는 노력을 하고는 불안해했었다니!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2주간 덮어두었던 복상 말씀들을 쭉 다시 읽으며 비전트립의 의미와 세례요한이 하였던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 그제야 주님을 찾았고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이, 또 나타나실 이가 하나님'이란 마음이 생긴 후로 모든 짐과 부담들이 부서져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남은 이틀 동안 나는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와 그곳에서 만나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드렸다.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다.

그렇게 연천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참 신기했던 것은 열악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목소리까지 쉬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칠만 하면 에너지를 통째로 부어주셔서 끝까지 기분 좋게 일하게 하셨다. 감사했다.





**에스더 김주은 선생님**  
(성경)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인 에스더는 '별'(star)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는 말씀처럼 샘물 배움 공동체가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 주는 '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소 김한나 선생님**  
(국어)

하나님의 '미'레이자 '소'망인 우리 샘물학교 아이들을 언제나 미소로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기도로 수업을 준비하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국어 교사가 되겠습니다.

**연준 한승대 선생님**  
(국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듯이 연구하며 준행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준행하다라는 히브리어에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학생들과의 만남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교직원 이야기

##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2016년 새롭게 오신 샘물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삼이 김대은 선생님 (수학)

리미트 김가은 선생님 (수학)

에스더 김주은 선생님 (성경)

미소 김한나 선생님(국어)

소망 김해정 선생님(수학)

풍당 이은지 선생님 (사회)

클랑 임요한 선생님(음악, 뮤지컬)

짱샘 장상현 선생님(IT)

You 장유정 선생님(연구소)

토브 정윤정 선생님(체육)

향기 조수진 선생님(역사)

연준 한승대 선생님(국어)

WiNG 허윤정 선생님(역사)

소망 김해정 선생님(수학)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Lordship을 회복하는데 샘물학교가 또 하나의 역할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의 시간표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샘물의 제자들과 함께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리미트 김가은 선생님(수학)**

수학에서 리미트(limit)는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 개념입니다. 저의 평생이 예수님께 점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샘물인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무한대로 가까워지길 소망하며 즐거운 수학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삼이 김대은 선생님(수학)**

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루어 갈 샘물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샘물학교에서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당 이은지 선생님 (사회)**

하나님의 사랑에 풍당 빠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풍당 빠지고 싶은 풍당쌤입니다. 저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께 풍당, 사회수업에 풍당, 저의 매력에 풍당 빠질 수 있는 수업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샘물의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을 잊지 않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클랑 임요한 선생님(음악, 뮤지컬)**

클랑(Klang)은 울림, 소리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입니다. 샘물 학생들의 울림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더 '쿨' 너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더 성장하고 커질 샘물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는 수업이 저의 큰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입니다.

**짱샘 장상현 선생님(미디어, IT)**

25년 전, 제 꿈은 "좋은 아빠"입니다. 2016년, 제 꿈은 "좋은 아빠 & 선생님"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포도나무와 농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가지도 변함없이 늘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u 장유정 선생님(연구소)**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샘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교과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인이며,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you) 나를 통해 영원한 당신(You)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토브 정윤정 선생님(체육)**

제 별칭은 "토브 tov" 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선한, 좋은, very good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사가 되고 학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샘물학교의 모든 관계와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기 조수진 선생님(역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이 주님을 닮은 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돕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WiNG 허윤정 선생님(역사)**

'다음세대와 함께'라는 뜻의 With Next Generation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구성하는 사회(역사)교과를 통해, 다음 세대의 날개가 되어주는 텅샘, 다음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텅(샘, 다음세대와 함께 비전을 향해 날아가는 텅샘이 되겠습니다.





권문영 (땅끝사랑)샘  
학교 공공하신 일 무엇이든지 찾아주세요!

상임이사겸 지원본부장  
학부모님, 학교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모르... 자녀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지원팀  
샘물인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본인의 진로를 고민하며 탐색하고 싶을 때 담임선생님을 통해 언제든지 진로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김미정 (소통)샘  
학부모 소통, 중보기도, 진로상담/수업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납부기한을 지켜주세요 ^^

이수현 (축복)샘  
자금관리 및 집행, 세무, 발전기금  
가끔 저에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 일일이 설명하긴 어려운데 없으면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김영진 (피스메이커)샘  
재무, 인사, 법무, 총무 등 행정 전반  
샘물인 여러분~ 카메라를 피하지 말아주세요! 샘물을 샘물답게 잘 담아 소개하는 특권을 아름다운 샘물인 모두에게 드립니다 ^^

고영민 (두주)샘  
전략적 계획, 입학, IT총괄  
우리학교에는 '전략적계획'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에게 인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 하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이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길을 찾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상현(짱)샘  
IT시스템, 네트워크/하드웨어 관리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기독교학교 운동에 있어 함께함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교회와 학교가 기독교학교 운동에 함께 협력하고, 재정적인 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과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유기남 (나눔)샘  
대외협력, 후원, 분석, 진로교육지원  
샘물인 여러분~ 카메라를 피하지 말아주세요! 샘물을 샘물답게 잘 담아 소개하는 특권을 아름다운 샘물인 모두에게 드립니다 ^^

이혜승 (맑음,토끼)샘  
출판 및 디자인, 홍보 등 지금 보시고계시는 소식지제작^^

이옥진 (들꽃)샘  
보건실

학교 공공하신 일 무엇이든지 찾아주세요!

학부모님, 학교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모르... 자녀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지원팀

김미정 (소통)샘

이수현 (축복)샘

김영진 (피스메이커)샘

고영민 (두주)샘

장상현(짱)샘

유기남 (나눔)샘

이혜승 (맑음,토끼)샘

이옥진 (들꽃)샘

# 궁금해요, 샘물지원본부!

글\_이혜승 선생님(대외협력팀)

**샘물**중고등학교에는 다른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지원본부'가 있습니다. 크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학교의 재정을 담당하고, 중장기 전략 및 기독교학교운동의 확산을 위한 기획과 소통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독교학교이기에 일반 학교의 행정실의 기능을 넘어 전략, 재무, 인사, 홍보, 후원, IT, 학부모소통, 대외협력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본부는 5개 부서, 9명의 교직원이 섬기고 있습니다. 총괄교장대행, 상임이사로 섬기면서 지원본부장을 겸임하시는 땅끝사랑(권문영) 선생님은 총괄교장대행으로 학교의 모든 일을 지휘하고 경영하며, 상임이사로서는 기획 및 조정, 이사회, 위임사항, 학교 건축 및 공간을 담당합니다. 지원본부장으로서 전략계획을 총괄하고 이사회 예산, 결산 보고, 학교회계와 후원금 등의 예산활동을 감독하며, 인사, 입학, 장학, 후원금모금, 대내외 소통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행정지원팀(김영진/이수현)은 학교의 전체 살림살이 및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예산수립 및 집행, 2)수업료 및 발전기금 관리, 3)세무, 4)교직원의 채용 및 인사, 5)계약 및 법무 이외에도 공간 관리, 셔틀버스 운영, 여행수업 동행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합니다.

전략기획팀(고영민/장상현)은 샘물의 제도,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1)전략적계획의 수립과 실행 관리, 2)이사회 3)중간관리자 교육(전략적계획과 연계), 4)IT 전략수립 및 실행, 5)입학, 6)유학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 교무, 생활, 학부모, 예비학부모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외협력팀(유기남/이혜승)은 기독교학교 운동의 확산을 위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1)학교홍보 기획 및 실행, 2)출판 및 디자인, 3)후원 모금 및 후원자 관리, 4)교회 및 기독교학교와의 협력, 5)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 학부모교육, 가을컨퍼런스 및 진로수업, 통계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팀(김미정)은 샘물의 모든 가정들이 학교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1)학부모와의 소통 2)샘사랑(샘물학부모회)과의 협업 3)진로 상담 및 교육 4)홈스테이 지원 5)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실(이옥진)에서는 샘물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1)아픈 학생들의 회복 지원 2) 외상이나 응급을 요하는 학생들의 치료 및 처치, 3)전염병 등의 예방 관리 4)보건교육자료의 수집 및 보건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샘물의 교사와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샘물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학교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지원본부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Illustrated by Haeseung Lee



# 제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샘물교사

글 \_ 이정미 선생님 (연구교감)



**샘물**배움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샘물인들의 성장은 샘물배움공동체 성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성장은 그 귀한 꽃을 피우기 위해 꼭 필요한 거름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직원 연수 중 '기독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표현하기'

'샘물의 교사'라는 직분은 부름 받은 기쁨과 거룩한 부담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기독교 교사로서 부름 받은 소명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귀한 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소명은 '가르침에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셨다'는 감사와 기쁨을 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게 한다. 그러하기에 샘물의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교사'로서의 계속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T-day (Teacher's day)

학기 중에 샘물의 교사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모임들을 하고 있다. 화요일 아침 교사 복상, 수요일 방과 후 회의시간, 중보와 친교를 위한 교사 목장, 자발적 모임인 교사 동아리 등 여러 모임이 있는데, 올해 새롭게 T-day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T-day는 매월 다른 요일 오후에 진행되는데,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하교를 하면 교사들은 오후 2시에 모여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 외부 강사를 모시고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듣기도, 함께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기도, 선생님들의 수업 시연과 피드백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기독교 교육 서적을 읽고 책 나눔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친교 시간도 가진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3월 T-day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이숙경 교수님의 강의(기독교교육과 정체성)로 시작되었다.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 함께 하는 공동체적 교육, 늘 새롭게 성장하는 교육에 함께 마음을 모았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로리샘(안은경)과 연준샘(한승대)의 삶의 이야기와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은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매월 T-day 때마다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데, 한 분 한 분 선생님의 삶과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것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과 상임이사님께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해야 할 주제를 나누셨는데, 기독교 교육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샘물 교사들의 성장이 곧 제자들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에 공감하시면서 흔쾌히 T-day 실행에 동의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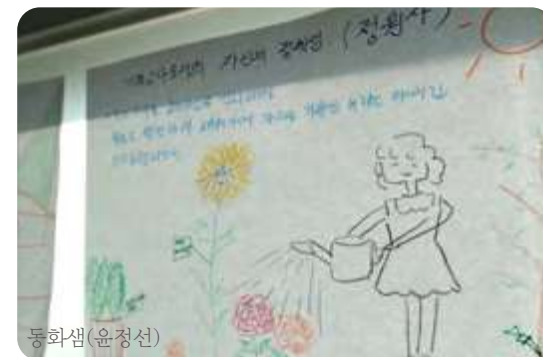
## 방학 중 교직원 연수

샘물 교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은 방학에도 계속된다. 2주 동안 진행되는 방학특강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은 계속 이어지고, 자기경영서를 점검하면서 담임 선생님들은 제자들의 일상의 성실함을 돕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개인 영성의 성장을 위해 흐르는 생수의 강(RS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방학 마지막 주에는 샘물의 전 교직원이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방학 중 교직원 연수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교사 교육의 주제를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자리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중보하면서 샘물배움공동체의 하나 됨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겨울방학(2월)에 있었던 교직원 연수는 '샘물 교사,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기'라는 주제로 3일 동안 학과 중심의 워크숍형태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사(수학)의 길을 걷고 계시는 김윤권 선생님(부산 이사벨고)이었다. 앞서 걷고 계신 현장의 이야기에 많은 교사가 귀를 기울였다. 워크숍에서는 학과별로 가르치는 교과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정의해보고 논의 내용을 모든 교사와 함께 나누면서 다른 교과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샘물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풍성하게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다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 후반에는 봄 학기에 가르칠 중단원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는 협업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였다.



동화샘(윤정신)

이제 2016년 봄 학기가 시작되었다. 샘물인들은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힘겹게 영성을 다지고, 인성을 다듬고, 실력을 버리는 샘물의 교육에 집중할 것이다. '부모와 스승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샘물인들의 영성, 인성, 실력의 통합적인 성장



을 위해서 우리 교사가 먼저 영성과 인성과 실력을 통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혼자서는 기독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함께 격려하고 중보하고 섬길 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적 역량을 가지게 된다고 믿는다.

때로는 기독교사로서 부름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필립 메이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당신이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당신을 온전케 하사 학교생활 중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샘물의 통합교육

## 샘물통합교육 소개

글 \_ 최아름 선생님(통합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말랑샘, 최아름입니다. 2014년부터 '통합교육지원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희 통합교육지원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는 학교가 시작된 2009년부터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더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팀을 갖추어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6명의 발달장애 학생(지적장애 5명, 자폐범주성장애 1명)이 재학 중이며, 두 분의 특수교사가 이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각자 소속된 학급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별도의 학습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받습니다. 매 학기 초에 특수교사,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개별화 교육계획(IEP: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라고 부릅니다. IEP에는 학생들의 기본정보, 각 영역에서의 강점과 약점, 장·단기목표, 일반수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한 수정과 조정, 학교 내에서 받게 되는 특수교육, 그 밖의 관련 서비스, 전환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통합교육 지원대상 학생들은 샘물에서 또래와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자신만의 교육계획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과 함께 교과목의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장애 학생들이 일반교과수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저희 통합지원교사들은 교과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일반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수준 조정, 학습 목표 및 자료의 수정, 평가방법의 수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교과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몫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은 통합지원실에서 1:1 또는 소그룹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렇게 분리되어 배움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의 개별목표성취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것을 학생과 부모, 교사가 동의했을 때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장애나 수업 내용의 난이도 때문에, 혹은 수업 적응이 어렵거나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로는 결코 분리되어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지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크게 기초학습, 생활중심학습, 전환실습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영역에는 읽기 이해, 쓰기 표현, 알파벳, 파닉스, 기본연산이 포함되며, 학생들은 입학 직후에 실시하는 기초학습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충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기본 덧셈, 뺄셈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부터 고등 검정고시를 이미 통과한 학생까지) 많은 경우 1:1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중심학습영역에는 생활국어, 생활수학, 생활과학, 생활사회, 생활영어 등의 과목이 포함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독립적인 성인기 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과에 접근합니다. 생활중심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는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학기 생활국어 수업에서 '식품의 포장지'를 통해 상품의 이름, 양, 유통기한, 영양성분, 조리법, 보관 시 주의점 등을 파악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모든 학생이 작은 글자를 꼼꼼히 읽은 뒤, 교사인 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식품 설명서에 어찌나 어려운 표현들이 많은지 스파게티소스 병 하나로 45분 내내 수업한 적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날 수업에서 병 겉면에 적힌 "냉장보관요. 개봉 후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한 번 뚜껑을 열고 나면 상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드세요"라고 쉬운 표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물 보관에 대한 주의 사항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적어서 판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참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또래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일상생활 기술과 지식을 구조화된 수업 안에서 작은 단위로 나누어 반복을 통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교육지원팀은 생활중심 학습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샘물만의 장애 학생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실습영역에는 올라페에서 시행되는 물건판매 및 매장정리, 바리스타 교육, 간단한 간식 만들기, 교무실 업무보조, 도서실 업무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은 직업의식을 키워가고





왼쪽부터 유지민(9), \*이지홍(1기 졸업생), 한정운(11학년), 가운데 뒤 임성아(10학년)

\*샘물중고등학교에서 통합지원교육을 받은 1기 졸업생 이지홍 학생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작년 2015 LA 스페셜올림픽 자유형 50m 은메달, 계영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훈련을 합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라 아직 직업실습영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편이지만 학생들이 더 많은 직업실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점점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통합교육지원팀에서는 교사, 비장애 또래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이해교육이 장애 체험이나 장애 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정보 전달에서 그치는 것과는 달리 샘물중고등학교의 장애이해교육은 '우리는 모두 정교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장애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몫'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보내는 6년의 세월을 통해서 샘물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를 바라보는 바른 눈,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내어 쬐는 큰 손을 가지게 될 것을 바랍니다.

저희 통합교육지원팀은 '2020년 20명의 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샘물중고등학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장애(impairment 또는 disability)가 전혀 장애(handicap)가 되지 않는 샘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통합교육지원대상자로 입학할 때 필요한 조건과 절차,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얼마나 통합되고 있는지, 수업에 관하여, 검정고시를 통과하기 어려운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어떻게 중·고등 학력을 취득하게 되는지, 졸업 후 진로 등 궁금한 사항은 areum@smca.or.kr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저는 농구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릅니다. 저는 2014년 전국 지적장애 농구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습니다. 저는 그때 슈팅가드를 맡았었는데 레이업 슛을 잘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샘물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컨퍼런스입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나면 카페에 취직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현 학생(12학년)



저는 샘물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일샘 반이 된 이후로 친구가 많이 생기고 관계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10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원실에서 하는 공부가 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예배, 연합예배, 컨퍼런스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한정운 학생(11학년)



김수연 학생(11학년)

샘물의 통합교육

개성 넘치는  
6명의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임성아 학생(10학년)

저는 샘물초등학교, 샘물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샘물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소소샘 반이 되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소소샘은 잘생겼고 친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도 친하게 지내서 좋아요. 저는 국어수업이랑 사회수업을 좋아하고 지원실에서 하는 성경수업, 세계지리 수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세동에 살고 있습니다.

유지민 학생(9학년)

저는 유지민입니다. 올해 통합지원실 청지기로 뽑혔어요. 혹시 통합지원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샘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좋아요. 그중에서 특히 말랑샘, 사공샘이랑 지혜, 은지, 수아, 한나, 은주, 호준이, 진형이, 희준이가 좋아요. 저는 지역사회 배움 시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도 가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윗하모니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올린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연주하고 싶습니다.



서유민 학생(7학년)



올해 입학했는데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저를 샘물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샘물학교에 와서 너무 즐겁고, 말랑샘도 예쁘고 단비샘도 예쁘고 친구들도 친절하고 다 좋아요.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처음으로 네 밤이나 엄마 없이 자고 왔어요. 친구들이 나와고 팔짱도 끼고 짐도 들어주고 어디 갈 때 알려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맙웠어요. 샘물중학교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저는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샘물중학교에서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토론 주제)

샘사랑이 부모님과 소통을  
말하기 위한 아이디어

학부모 이야기  
**샘사랑 학부모회**  
글 \_ 김성진 학부모님  
(샘사랑 부회장 / 12 다니엘, 10 예나)

**샘** 사랑은 참 별난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학부모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 안에서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복이 자 샘물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회에서 속한 분들 속에서 발견한 신실함, 배려, 경청과 섬김의 모습은 매년 재야(在野)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자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한편 더 많은 학부모님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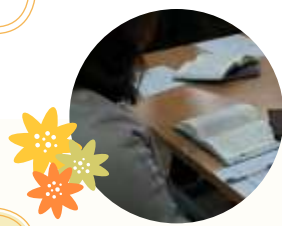
샘물공동체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학부모가 입학하는 것입니다. 샘물의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샘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먼저 걸어가는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부모가 먼저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자녀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오다 회심한 즈음에 샘물학교에 아들을 보내면서 저도 같이 입학해서 함께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만 먹었지 우리 아이나 저나 믿음의 출발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 가르치

고 잔소리할 형편도 못되고 제 앞가림하기 바쁜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복상노트를 가끔 보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이들이 믿고 따라오는 모양새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믿음을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저희 부부는 샘물에서 6년차이고 둘째까지 졸업한다면 8년을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을 둔 부모가 상가건물에 있던 샘물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 하지만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은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결론은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큰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아니라 샘물에서 배운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잘 이겨낼지 살짝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훨씬 더 큼니다. 그 기대는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서 더 큰 확신으로 변화였고 학교에서 우리 이쁜이들과 귀염둥이들을 쳐다보면 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학교가 지어져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 들렀을 때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부모 이야기  
**늦둥이 엄마의 사랑고백, 중보기도**  
글 \_ 오진숙 학부모님  
(샘사랑 공동체부장 / 중보기도팀장, 9학년 엄진수 어머니)



**나**,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 진수를 샘물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샘물학교는 사교육의 고민으로부터 엄마인 나를 해방시켜주고,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매체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며, 무엇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어쩔 수 없는 공교육의 구조에서 우리가정을 빼 내 주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양육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르겠다. 그 뿐인가? 사랑과 대화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청소년기의 해맑은 웃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엄마의 따뜻한 소통,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들, 뜨거운 예배의 자리...

샘물로 인해 이 늦둥이 엄마가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 최소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려고 한다. 학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어머니 중보기도모임 참석이다!!! 물론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의 뒷모습도 보며, 맛있는 급식도 먹으며, 생동감 넘치는 학교현장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기도는 다르다. 샘물학교를 다니는 것이 마냥 좋고 쉬운 것만은 아니다. 기독교학교는 좁은 길이기에 어쩌면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PC방 출입으로 광야학교를 해마다 가고ㅠㅠ, 집에서는 인터넷이 절제가 안되 소리를 지르고, 중3인데...언제쯤 공부해 주실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자라가는 내 아이가 보이고, 나 또한 입학 3년째 이렇게 훌쩍 성장해가는 것을 본다.

샘물의 어머니들이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섬기는 예수제자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자!  
샘물학교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의 밑거름이 되자!

요일별 중보기도모임은 더 많은 샘물의 어머니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졸업생 이야기

## 샘물고등학교 2회 졸업식

재학생 송사 글 \_ 박지윤 학생(12학년 2반)

먼저 선배님들의 일생에 한 번뿐인 고등학교 졸업식 송사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샘물에 6년째 있다 보니 오늘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은 저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동안 샘물의 길을 걸어주신 선배님들이십니다.

먼저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3을 겪어본 적이 없다보니 복도를 지나다니며 떠드는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 것인지 고3이 되고 보니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시끄러우셨을텐데 저희한테 한번도 안좋은 소리 하지 않으시고 어린 저희를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샘물의 2기 선배님들은 정말 남다른 분들입니다. 여자 선배님들은 정말 춤도 잘 추시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고, 남자 선배님들도 여선배님들 못지 않게 활동적이셔서 축구를 어찌나 잘하시던지 축구를 잘 못하는 저희 학년 친구들 보다가 선배님들이 축구하시는 모습을 보면 속이 땡 뚫리는 기분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끼도 많고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신 선배님들을 오늘 이시간이 지나면 자주 뵈지 못한다는 사실이 선배님들을 동경했던 후배들 중 한 사람으로서 너무 슬프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이 마지막을 아님을 알기에 슬픔을 꼭 누르고 선배님들의 가시는 길을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샘물의 두 번째 열매이신 선배님들, 샘물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형통하시길, 샘물의 후배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선배님들도 남은 후배들 그리고 더 생길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실까요?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샘물의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또한 샘물의 자랑입니다.



졸업생 답사 글 \_ 왕희찬 졸업생(2기)

3년 전 이맘때쯤 몇몇 처음 보는 얼굴들과 함께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이 어색했던 순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질릴 정도로 익숙해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졸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살아온 샘물이라는 삶이 내일부터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리라는 생각에 막막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고, 비료와 햇빛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매를 따서 바구니에 담은 시간임과 동시에, 정성들여 키운 나무에서 열매가 사라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확이 끝나고 텅 빈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 나서야 지난 시간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얼마나 아쉬운가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졸업하는 친구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섬기는 예수 제자로 살아내길 소망했지만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한 번 더 못하고,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신뢰한 번 더 주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 시간들을 걸으며 후회만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때때로 아팠지만,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세상 누구보다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순간들도 많지만 그 순간들마저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열매를 수확하고 텅 빈 우리의 나무가 절대로 헛된 땀값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졸업식 기념촬영



졸업전야제



## 까만 아이들을 향한 한 걸음



글 \_ 김신아 졸업생(1기, 한림대 의예과 1학년)

**U** 아세레를 받았지만 어릴 적 교회를 잘 다니지는 않던 저는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중학교 때 교회에 갔다가 멋있는 찬양팀 선생님을 보고 덜컥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을 하며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회를 하고 훈련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또 저에게로만 향하던 초점을 조금씩 다른 사람들, 무언가가 필요한 이웃에게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샘물고등학교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 받는 은혜를 선물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 예배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부분은 지구마을의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고 작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것들, 음식, 정말 작은 의료 때문에 지금도 죽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곳에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지구촌을 향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특별히 의료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국경없는 의사회’ 설명회를 다녀온 후 그 꿈이 간절해졌습니다. 그 아이

오늘 졸업하는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졸업식이라는 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파송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확한 열매는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고, 열매가 사라진 우리의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직접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빛을 주어 키워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나무는 백만인을 거뜬히 감당하는 굉장한 나무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나무를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물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오늘, 고요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가득찬 3년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지나고 백만인을 감당할 나무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를, 이 모든 수확의 열매를 바라보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들과 후배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샘물이 그대들의 자랑이듯 그대들도 샘물의 자랑입니다.



은혜샘물교회 청년부 모임(왼쪽에서 세번째)



은혜샘물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로 섬기며

들의 눈망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매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본 저는 의대에 갈 성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는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던 중 국제학부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지구마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선생님들께서 재수를 권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꾸던 꿈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지만, 재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더 두렵고 무겁고 버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재수한다고 의대에 꼭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지’라는 생각, ‘내 안에 이기적이고 내가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재수를 하며 힘든 과정을 또 겪고 나서도 누군

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킨 생각들과 두려움의 중심에는 ‘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꿈을 품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공부할 수 있던 이유와 힘은 제가 아니었는데 제가 심은 마음인 양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중, 샘물학교를 다니며 듣고 마음에 꼭꼭 박혔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가족과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재수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학원에 가서 빠른 진도와 쏟아지는 과제에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치의 충돌이었습니다. SKY, 의치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원에서 저는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공부하던 모습은 희미해졌고 주말에 집에 있을 때 벽에 붙여놓은 아프리카 아이의 사진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의대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물론 아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너무 멀고 동떨어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촌에 대한 마음, 그 이전에 샘물에서 배운 일상의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는 다른 크고 어려운 것보다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멀리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 주신 것, 그 하나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하듯



대학생활 중에 새로 사귄 학교 친구들과 함께(왼쪽)





샘물중고등학교 11학년 비전트립 중에

하는 것, 오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정해진 것 없이, 한 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 생활 속 더 많이 불안해하고 삼수의 두려움으로 잠들던 세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 매일의 일상의 감사 거리들, 주일날 만나 기도제목 나누고 기도해주는 소중한 목장 식구들과의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들, 맛있는 밥,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있는 일상임을 삶으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수 생활을 하루하루 쌓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수능을 본 후 의과대학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많이 실수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은 연약한 저입니다. 의대에 진학한 저는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많고 '국경없는 의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이 꿈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매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오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고 사용해주시길 것이라고 믿어요.

생각이 자라고 가치관이 정해지는 소중한 고등학교 시절을 샘물고등학교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겐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일상에서 배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어떻게 예배로 드러야 하는지를 배운 것은 너무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샘물에서 심겨주신 배움의 씨앗들을 조금씩 뿌리내리게 해주신 은혜도 너무 큼니다. '섬김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배운 샘물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배움이 끊이지 않기를, 섬기는 예수님 제자로 함께 자라나는 샘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독교학교는 '다음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나라 운동입니다!

샘물중고등학교는 섬기는 예수 제자를 기르는 기독(원안)학교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열악한 현실이지만 즐거운 배움과 성경적인 가르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섬기며 아이들의 목적있는 일상을 세워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큼니다. 성도의 자녀라면 누구나 샘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 1/3, 2015년 5.6억원) 하지만 장학금의 필요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샘물중고등학교가 교회, 가정과 함께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 가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수협중앙회 1130-0049-1086(예금주:샘물교육선교회)

### 샘물의 후원자님 (2016년 1월 ~ 3월)

강매순	김미숙	김종혁	박갑운	서시내	유민환	이병욱	이재우	정연선	최옥남	세종씨엔피주식회사
강문식	김민규	김준수	박명수	서재완	유철자	이봉구	이춘남	정우철	최용준	이노브주식회사
계영희	김석진	김준희	박상은	선애영	유수경	이상구	이해돈	정윤석	최희규	(주)서우타이밍
고영수	김선경	김지영	박선희	선지웅	유숙인	이상호	이현성	정은수	최종국	기쁨누리교회
고영은	김선화	김지용	박세현	성홍모	유시	이선경	이형섭	정은자	최종대	꿈꾸는교회
곽민환	김성수	김지희	박수연	소재목	유예동	이선주	이훈재	정조운	최한준	더사랑의교회
곽윤주	김성숙	김진영	박신영	송난난	유일광	이소현	임선희	정태열	최현경	선한목자교회
곽준우	김성은	김충곤	박연주	신원선	윤영선	이순희	임성도	제창희	추영혜	열린하늘문교회
곽현영	김성일	김태영	박원희	신윤지	윤정선	이승희	임성운	조성완	추충호	우리들교회
구영희	김성진	김태희	박은조	신준현	윤정희	이연희	임지순	조성혜	편혜원	은혜샘물교회
국영은	김수현	김해정	박일두	신철균	이가연	이영주	장금성	조영란	하헌재	
권다해	김순두	김현규	박재연	신혜경	이건	이옥진	장금아	조유숙	한동수	
권문영	김연	김호삼	박재현	심현아	이건수	이원우	장원희	조윤희	한선이	
권민창	김연석	김호일	박정석	안군식	이경미	이유태	장종수	조현국	함은희	
권영숙	김연우	김효정	박정현	안미여	이경민	이윤정	장혜순	주유진	합희영	
김경선	김영미	김후승	박종준	안은경	이계환	이은선	전동찬	주현	허윤지	
김광애	김영수	김희연	박진수	안은선	이광선	이은숙	전용주	진영탁	홍성우	
김난화	김원기	나미일	박철오	양희곤	이기진	이임숙	전혜숙	차명지	홍순철	
김남경	김은영	나중주	박현민	엄종석	이대성	이재용	정길현	차우창	홍의숙	
김동례	김은혜	남궁선	박홍락	오혜정	이동선	이재혁	정미선	차중호	홍지희	
김동언	김은희	남동훈	박희숙	왕동식	이만호	이정미	정미정	최나리	황수미	
김동혁	김인하	남형무	배신양	왕현정	이미선	이정진	정성욱	최미선	황의경	
김모라	김재문	노현훈	배신규	왕훈식	이미영	이주하	정성일	최상규	황지영	
김미라	김정현	무기명	백창현	우광제	이미화	이지수	정수연	최소명	황지혜	
김미란	김종대	문희진	백향숙	유기남	이민영	이창길	정승우	최수미		

"동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031.714.7091,0번)"



# 샘물중고등학교는 '다음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견고히 세워 갑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아이들은 대학 입학과 함께 교회를 떠나갑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사라지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샘물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기독교학교 샘물중고등학교는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교회공동체를 세워가는  
샘물 1,2기 졸업생

"대학청년 공동체가 이제 막 상하동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공동체로 꾸려져 갈 때 샘물학교1,2기 졸업생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고, 바쁜 시간 가운데 헌신하며,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로 준비되어가고 있습니다. 샘물의 귀한 열매를 저희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태희 목사(은혜샘물교회 청년부 담당)